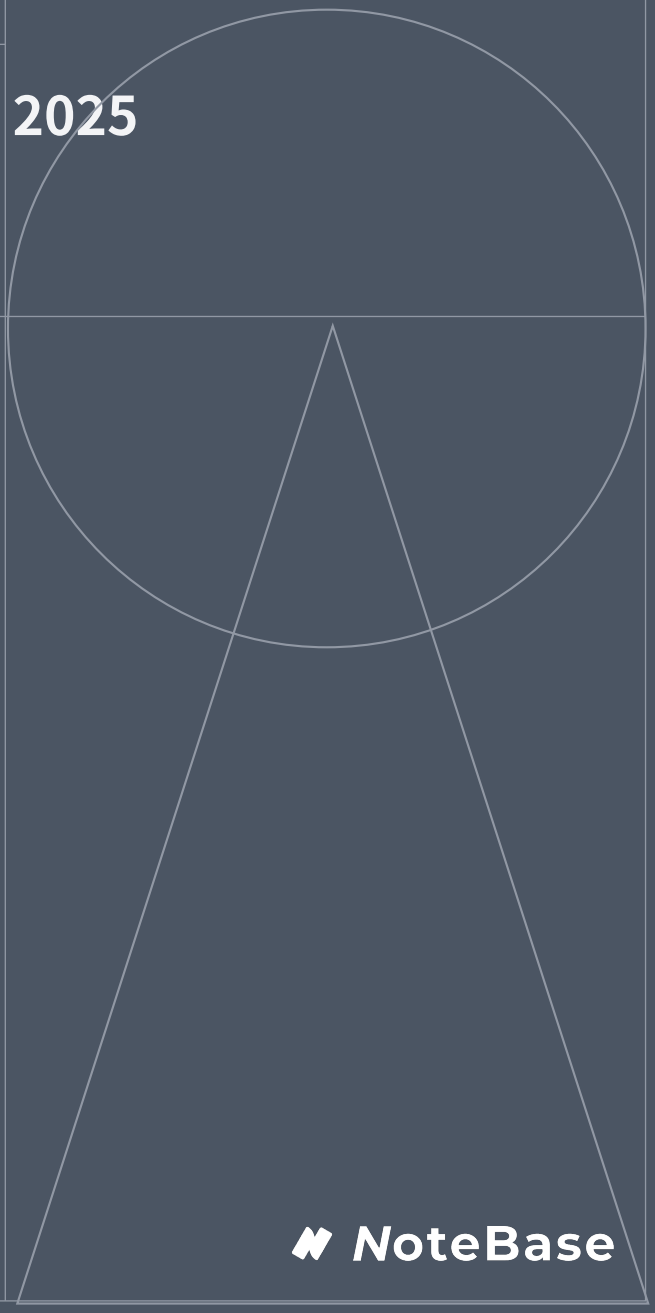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5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5

문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표현의 정확성
㉠ 의미에 맞는 정확한 단어 쓰기.
㉡ 부적절한 피·사동 표현에 유의함.
◯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 삼가기
㉢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사용함.
◯ 대등한 것끼리 접속
㉣ '-고', '-(으)며', '와/과' 등으로 접속되는 말에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함.

①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를 ㉠에 따라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수할 예정이다."로 수정한다.

②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시켜야 한다."를 ㉡에 따라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③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를 ㉢에 따라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로 수정한다.

④ "사업 전체 목표 수립과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를 ㉣에 따라 "사업 전체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로 수정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므로 **'환급'**이 알맞다. '환수'는 이미 지급하거나 넘겨준 것을 도로 거두어들이는 뜻이므로 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그 차액은 납세자가 더 낸 돈이다. 이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환급'**이다. '환수'는 이미 지급하거나 넘겨준 것을 도로 거두어들이는 뜻이므로 돈이 오가는 방향이 문맥과 맞지 않는다. ㉠에 따르려면 원문의 '환급할 예정이다'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② O: '배제하다'는 대상을 물리쳐 제외한다는 뜻으로, 주체가 직접 어떤 요소를 제외하는 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배제하도록 시킨다는 의미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동의 뜻을 더하는 '-시키다'**를 쓸 이유가 없다. '배제시켜야 한다'를 '배제해야 한다'로 고치면 ㉡에 맞게 불필요한 사동 표현을 없앨 수 있다.

③ O: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 모두를 초청한다는 뜻으로도, 관련 단체와 함께 시민들을 초청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민들을 초청하기로'로 고치면 **협의 대상은 관련 단체, 초청 대상은 시민들**로 분명해진다. 따라서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쓰라는 ㉢에 부합한다.

④ O: 원문은 '사업 전체 목표 수립'과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과'로 연결하여 모두 '제시한다'에 걸리게 한다. 그러나 목표는 수립하는 대상이고 추진 전략은 제시하는 대상이므로 각각에 맞는 서술어를 밝혀야 한다. **'목표를 수립하고'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로 고치면 목적어와 서술어를 갖춘 두 구성이 '-고'로 대등하게 이어져 ㉣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2.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연의 집안은 그의 할아버지인 김익순이 죄를 짓고 사형당하기 전까지 괜찮은 편이었다. 김병연의 5대조 할아버지 김시태가 경종 초에 신임사화에 연루되었지만, 영조가 즉위한 뒤 그것이 조작된 것임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었다. 김익순은 김시태의 후광을 입어 여러 관직에 나아갔다. 1811년 그가 선천부사로 재직 중일 때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이때 그는 반란군에게 항복했을 뿐만 아니라, 반란이 수습될 무렵에는 반란군 장수의 목을 베어 왔다는 거짓 보고까지 했다. 김익순의 이러한 행적이 드러나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사형을 당했다. 이후 김병연은 대역죄로 사형당한 인물의 후손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가 당대의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는 20세 전후로 부모가 모두 숨지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

① 김시태의 후손은 아무도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

② 김익순은 김시태의 죄상이 드러나 재산이 몰수되었다.

③ 김병연은 자신의 조상이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

④ 김병연은 대역죄인의 후손이어서 당대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김병연은 할아버지 김익순이 대역죄로 사형당한 뒤 **대역죄인의 후손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았다. 글의 '이 때문'은 이 오명을 가리키므로, 그것이 당대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지 못한 이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김시태는 신임사화에 연루되었으나 영조 즉위 후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명예를 회복했다. 그의 후손인 **김익순이 김시태의 후광을 입어 여러 관직에 나아갔으므로**, 후손 아무도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설명은 글과 어긋난다.

② X: 김익순의 재산이 몰수된 원인은 **김익순 자신의 행적**이었다. 그는 홍경래의 난 때 반란군에게 항복했고, 반란이 수습될 무렵에는 반란군 장수의 목을 베어 왔다고 거짓 보고했다. 이러한 행적이 드러나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사형당했으며, 김시태의 죄상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다.

③ X: 글의 마지막 문장은 김병연이 **20세 전후로 부모를 모두 잃은 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신임사화에 연루된 김시태는 이미 명예가 회복되었으므로, 김시태의 신임사화 연루를 방랑의 원인으로 연결한 것은 글의 내용과 다르다.

④ O: 김병연은 할아버지 김익순이 대역죄로 사형당한 뒤 그 후손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 했다. 이어지는 '그가 당대의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에서 **'이 때문'은 대역죄인의 후손이라는 오명**을 가리킨다. 따라서 선지는 글에 제시된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연결하고 있다.

NoteBase

문 3.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품사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밝다'의 경우 '날이 밝았다.'에서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라는 의미의 동사이지만, '햇살이 밝은 날'에서는 '불빛 따위가 환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이렇듯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품사 통용은 동음이의 현상과 구별된다. 즉 품사 통용은 서로 관련된 두 의미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인 반면, ㉠ 동음이의 현상은 먹는 '배'와 타는 '배'가 구별되는 것과 같이 서로 무관한 두 의미가 우연히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① 그는 여러 문화를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 삼촌은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곳에 산다.

② 내가 언니보다 키가 더 크다. /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마당의 풀이 잘 큰다.

③ 오늘이 드디어 기다리던 시험일이다. / 친구는 국립 박물관에 오늘 갈 것이라 한다.

④ 나는 어제 산 모자를 쓰고 나갔다. / 형님은 시를 쓰고 누님은 그림을 그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모자를 쓰다'는 머리에 모자를 얹는 행위이고, '시를 쓰다'는 글을 짓는 행위이다. 두 '쓰다'는 형태가 같지만 **서로 관련 없는 뜻**을 나타내므로 동음이의 현상에 해당한다.

NoteBase

공통 해설

동음이의 현상은 **서로 무관한 의미를 지닌 별개의 단어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품사 통용은 서로 관련된 의미를 유지하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두 표현의 품사가 같은지 다른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문맥 속 의미가 서로 관련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모자를 쓰고'의 '쓰다'는 모자를 머리에 얹는다는 뜻이고, '시를 쓰고'의 '쓰다'는 시를 짓는다는 뜻이다. 둘 다 동사이지만, 머리에 무엇을 얹는 행위와 글을 짓는 행위는 **의미상 관련이 없는 별개의 행위**이다. 이 두 '쓰다'가 동음이의 현상의 사례이다.

나머지 표현들은 품사가 달라져도 의미의 관련성이 유지된다. '비교적 관점'의 '비교적'은 관점을 꾸미는 관형사이고, '비교적 편리한'의 '비교적'은 '편리한'을 꾸미는 부사이다. 두 표현 모두 다른 대상과 견주어 본다는 의미를 바탕으로 한다.

'키가 크다'의 '크다'는 크기가 큰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풀이 잘 큰다'의 '크다'는 자라는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로, 크기와 그 크기가 커지는 변화라는 의미상의 관련성이 있다.

'오늘이 시험일이다'의 '오늘'은 조사 '이'가 붙은 명사이고, '오늘 갈 것'의 '오늘'은 가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이지만, 둘 다 지금 지나고 있는 이날을 가리킨다. 이처럼 '비교적', '크다', '오늘'은 지문에서 설명한 품사 통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침>
◯ 서론은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필요성을 포함할 것.
◯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2장의 하위 항목이 3장의 하위 항목과 서로 대응하도록 할 것.
◯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개요>
◯ 제목: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과 그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1장 서론

1.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방송 산업의 정책 변화
2. (가)

2장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

1. (나)
2.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 부재

3장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1. 국내 방송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제작 지침의 마련
2. (다)

4장 결론

1. (라)
2.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실행의 단계적 평가 및 개선

① (가):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전략의 필요성
② (나): 국내 방송 산업 내 친환경 제작을 위한 지침 부재
③ (다):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 채용의 제도화
④ (라): 친환경 방송 제작을 위한 세부 지침과 인력 채용 방안 제시

정답 4번

NoteBase

간단한 해설

'세부 지침과 인력 채용 방안 제시'는 본론에서 다룰 **정책 지원 방안**이다. 지침에 따라 결론의 첫 항목인 (라)에는 그 방안을 시행했을 때의 **기대 효과**가 들어가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서론의 두 번째 항목이다. 첫 번째 항목인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방송 산업의 정책 변화'가 보고서 작성의 배경을 제시하므로, 이어서 국내 방송 산업에도 친환경 제작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넣으면 **배경과 필요성**을 모두 포함하라는 지침에 부합한다.

② O: (나)는 국내 친환경 제작의 현황을 다루는 2장의 첫 번째 항목이다. '친환경 제작을 위한 지침 부재'는 현재의 문제점을 나타내며, 이를 해결하는 3장의 첫 번째 항목인 **'친환경 제작 지침의 마련'과 대응**한다. 현황과 정책 지원 방안을 두 장으로 나누고 하위 항목끼리 대응시키라는 지침에 맞는다.

③ O: (다)는 정책 지원 방안을 다루는 3장의 두 번째 항목이다. 2장의 두 번째 항목에서 '전문 인력 부재'를 문제점으로 제시했으므로, **전문 인력 채용의 제도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면 두 항목이 대응한다.

④ X: (라)는 결론의 첫 번째 항목이므로,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이라는 지침에 따라 **기대 효과**를 담아야 한다. '세부 지침과 인력 채용 방안 제시'는 3장에서 다루는 정책 지원 방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라)는 예를 들어 '정책 지원을 통한 친환경 방송 제작 확산의 기대 효과'처럼 방안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항목인 '정책 실행의 단계적 평가 및 개선'이 향후 과제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5. 다음 글의 ㉠~㉤ 중 문맥상 어색한 곳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면역반응에는 '자연면역'과 '획득면역'이 있다. 먼저, 자연면역이란 외부 이물질에 대해 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된 저항 능력을 가리킨다. 자연면역에서는 항원과 항체 사이의 ㉠ 직접적인 일대일 반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들어온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의 항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면역은 세균과 같은 미생물 등을 외부 이물질로 인식하여 제거한다. 예컨대 코나 폐에는 점막조직이 발달해 있어 외부 이물질을 걸러 낸다. 세포 차원에서는 대식세포의 기능이 자연면역인데, 이 세포는 ㉡ 외부 미생물이 어떤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대상을 제거한다.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의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반응을 획득면역이라고 한다. 획득면역에서는 자연면역과 달리 ㉢ 항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특정 항원에 대해 여러 종류의 항체가 반응한다. 일례로 B림프구의 세포 표면에는 특정 항원을 인식하고 그 특정 항원에 결합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를 '항원 수용체'라고 한다. ㉣ 항원 수용체는 세포 표면에 형성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항원에 의해 자극된다. 이 수용체가 림프구 세포로부터 떨어져 나와 혈액 안으로 들어간 단백질 단위를 항체라고 부른다.

① ㉠: 직접적인 일대일 반응 관계가 존재한다

② ㉡: 특정한 외부 미생물에 유일하게 반응하며 그 외의 대상은 제거하지 않는다

③ ㉢: 특정 항체가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④ ㉣: 항원 수용체는 세포 내부에 형성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항체에 의해 자극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글에서는 획득면역을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반응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의 '항원의 종류와 무관하게'라는 표현은 앞뒤 문맥과 어긋나며, **특정 항체가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이 글은 자연면역과 획득면역을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의 유무를 중심으로 대비한다.

① X: ㉠ 바로 뒤의 문장은 자연면역에서는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항원과 항체 사이에 직접적인 일대일 반응 관계가 '존재한다'로 바꾸면 뒤 문장과 모순된다. 원문의 **'존재하지 않는다'**를 유지해야 한다.

② X: 글에서 대식세포는 자연면역의 예로 제시되어 있다. 자연면역은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를 통한 반응과 구별되므로, 대식세포가 특정 미생물에만 반응하고 나머지는 제거하지 않는다는 수정은 문맥에 맞지 않는다. ㉡은 원문처럼 **외부 미생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상을 제거한다**는 내용으로 두어야 한다.

③ O: ㉢ 앞에서는 획득면역을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의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반응'이라고 정의한다. 뒤에서도 B림프구의 항원 수용체가 특정 항원을 인식하고 그 항원에 결합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항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여러 항체가 반응한다는 ㉢을 **'특정 항체가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한다'**로 고치면 앞의 정의와 뒤의 사례가 일관되게 연결된다.

④ X: ㉣ 앞에서는 항원 수용체가 B림프구의 '세포 표면'에 있으며 특정 '항원'을 인식하고 결합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세포 내부'에 형성되고 '항체'에 의해 자극된다고 바꾸면 위치와 반응 대상이 모두 앞의 설명과 어긋난다. 원문처럼 **세포 표면에 형성되고 항원에 의해 자극된다**는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

NoteBase

문 6. (가) ~ (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가) 픽셀 단위로 수치화된 이미지 데이터는 하나의 긴 데이터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된다. 초기 컴퓨터의 경우 흑백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는 하나의 픽셀에 대해 흑과 백이 0과 1로 표현되는 1비트로 저장되었다.
(나) 높은 해상도의 구현은 데이터 저장 용량의 문제를 일으켰고, 용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도 함께 고안되었다. 이를 통해 고해상도의 이미지도 웹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지를 디지털로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픽셀 단위로 수치화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라) 하지만 현재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픽셀에 여러 색상의 정보를 담게 되었다. 초기 색상 표현은 하나의 픽셀이 흑과 백의 1비트였으나, 최근에는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기 위해 픽셀 하나에 32비트까지 사용한다.

① (나) - (가) - (라) - (다)
② (나) - (다) - (가) - (라)
③ (다) - (가) - (라) - (나)
④ (다) - (라) - (가) - (나)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라)의 '하지만 현재는'은 (가)의 **초기 컴퓨터의 흑백 표현**과 현재의 여러 색상 표현을 대조한다. (나)는 (라)에서 언급한 고해상도 구현에 따른 **저장 용량 문제와 그 해결**을 이어서 설명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다) → (가) → (라) → (나)

(다):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처리하려면 디지털 변환이 필요하다는 점과 픽셀 단위로 수치화하여 저장하는 기본 방법을 소개한다. 다른 문단의 설명에 필요한 **전체 화제와 기본 원리**를 제시하므로 맨 앞에 온다.

(가): 첫 문장의 '픽셀 단위로 수치화된 이미지 데이터'는 (다)의 마지막 문장에서 소개한 저장 방법을 이어받는다. 이어 초기 컴퓨터에서 흑과 백을 0과 1의 1비트로 표현했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인다.

(라): '하지만 현재는'은 앞서 설명한 초기 컴퓨터의 흑백 표현과 현재의 여러 색상 표현을 **대조**한다. 따라서 초기의 저장 방식을 설명한 (가) 뒤에 와야 한다. 문단 끝에서는 픽셀 하나에 사용하는 비트 수와 높은 해상도의 구현을 언급한다.

(나): 첫 문장의 '높은 해상도의 구현'이 (라)의 끝부분을 이어받아, 그에 따른 **저장 용량 문제**를 제시한다. 이어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로 그 방법 덕분에 고해상도 이미지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NoteBase

문 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어진 영웅 소설의 세계 구조에서 서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상계의 일이지만 인과론적 구도로는 천상계가 우위에 있다. 천상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에 의해서 지상계의 서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천상계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발생과 귀결을 지배하는 초월적 세계로서, 일시적으로 고난에 빠졌던 주인공이 세상에 창궐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해 주는 근거로 작용한다. 지상의 혼란이나 세계 질서의 모순은 일시적인 것일 뿐 현실의 구체적 갈등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어서 초월적 세계가 이미 설계한 바에 따라 쉽사리 해소된다. 이런 모습의 세계 구조를 '이원적 세계상'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판소리계 소설의 세계상은 대체로 일원적이고 경험적이다. 판소리계 소설에는 초월적 세계가 지배적 장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현실의 경험적 인과 관계에 의해 서사가 전개된다. 예컨대 변학도의 횡포로 인한 춘향의 수난, 흥부의 가난과 고난, 심청과 심봉사의 불행, 유혹에 넘어간 토끼의 위기 탈출, 배비장의 욕망과 봉변, 장끼의 죽음 등은 초월적 세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 없이 현실적 삶의 인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① 영웅 소설은 이원적 세계상을 잘 보여 주는 문학적 갈래이다.

② 판소리계 소설에서 서사의 인과 관계는 경험적 현실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다.

③ 천상계의 대리자가 지상계의 서사를 결정하는 작품에서는 이원적 세계상이 발견된다.

④ 영웅 소설에 비해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초월적 세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는 두 소설 갈래의 특징을 뒤바꾸었다. 초월적 세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영웅 소설**이며, 판소리계 소설은 대체로 **현실의 경험적 인과 관계**에 따라 서사가 전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영웅 소설에서는 천상계와 지상계가 나뉘어 있고, 천상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이 지상의 사건을 결정한다. 이처럼 두 세계가 존재하면서 **초월적 세계가 지상계의 사건을 지배**하는 구조이므로 이원적 세계상을 잘 보여 준다.

② O: 판소리계 소설은 대체로 일원적이고 경험적인 세계상을 보인다. 가령 춘향의 수난은 천상계의 의지가 아니라 **변학도의 횡포**라는 현실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현실적 삶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③ O: 천상계의 대리자가 지상계의 서사를 결정한다면, 지상의 사건을 초월적 세계의 개입으로 설명하는 구조이다. 이는 천상계가 **인과론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원적 세계상에 해당한다.

④ X: 초월적 세계가 이미 설계한 바에 따라 지상의 혼란과 모순이 해소되는 것은 **영웅 소설의 특징**이다.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초월적 세계가 지배적 장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영웅 소설에 비해 판소리계 소설에서 두드러진다'는 비교를 뒤집어, 판소리계 소설에 비해 영웅 소설에서 그러한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8. 윗글의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어진 영웅 소설의 세계 구조에서 서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상계의 일이지만 인과론적 구도로는 천상계가 우위에 있다. 천상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에 의해서 지상계의 서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천상계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발생과 귀결을 지배하는 초월적 세계로서, 일시적으로 고난에 빠졌던 주인공이 세상에 창궐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해 주는 근거로 작용한다. 지상의 혼란이나 세계 질서의 모순은 일시적인 것일 뿐 현실의 구체적 갈등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어서 초월적 세계가 이미 설계한 바에 따라 쉽사리 해소된다. 이런 모습의 세계 구조를 '이원적 세계상'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판소리계 소설의 세계상은 대체로 일원적이고 경험적이다. 판소리계 소설에는 초월적 세계가 지배적 장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현실의 경험적 인과 관계에 의해 서사가 전개된다. 예컨대 변학도의 횡포로 인한 춘향의 수난, 흥부의 가난과 고난, 심청과 심봉사의 불행, 유혹에 넘어간 토끼의 위기 탈출, 배비장의 욕망과 봉변, 장끼의 죽음 등은 초월적 세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 없이 현실적 삶의 인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① 언니는 뽀얗게 일어나는 물보라에 손을 대었다.
② 그는 가까스로 일어나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③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④ 싸움이 일어나는 동안 그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은 지상에서 **사건이 생기거나 발생한다**는 뜻이다. '싸움이 일어나는'도 싸움이라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일부이다. 뒤에 이어지는 '사건의 발생과 귀결'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일어나다'는 **어떤 일이 생기거나 발생하다**라는 뜻이다. 각 문장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다.

① '물보라에 손을 대었다'는 문맥에서 '일어나는'은 **물보라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낸다. 사건의 발생을 뜻하는 ㉠과는 의미가 다르다.

②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문맥에서 '일어나는'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낸다. 지상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의 의미와 구별된다.

③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에서 '일어나는'은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사건이 생긴다는 ㉠의 의미와 다르다.

④ '싸움이 일어나는 동안'에서 '일어나는'은 **싸움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지상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는 ㉠과 같은 의미이므로, 네 문장 중 ④의 쓰임이 가장 가깝다.

NoteBase

문 9.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영희가 친구 혹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영희는 커피를 마셨다.
◯ 영희는 친구 혹은 선배를 만났다.
◯ 영희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

① 영희는 선배를 만났다.
② 영희는 친구를 만났다.
③ 영희는 선생님을 만났다.
④ 영희는 선배와 선생님을 모두 만났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커피를 마신 적이 없으므로, 커피를 마시게 되는 조건인 **친구나 선생님을 만난 일도 없다**. 그런데 친구 혹은 선배를 만났으므로, 친구를 만나지 않은 영희는 선배를 만났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조건문은 결과가 거짓이면 그 조건도 거짓이어야 한다. 이를 대우를 이용한 추론이라고 한다. 첫 진술에서 영희가 친구와 선생님 중 누구라도 만났다면 커피를 마셨어야 한다. 그런데 커피를 마신 적이 없으므로 **친구도 선생님도 만나지 않았다**.

① O: 둘째 진술에 따르면 영희는 친구 혹은 선배를 만났다. 이때 '혹은'으로 연결된 두 내용 중 적어도 하나는 참이어야 한다.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므로 **선배를 만났다는 내용이 참**이어야 한다.

② X: 친구를 만났다면 첫 진술에 따라 커피를 마셨어야 하므로,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는 셋째 진술과 모순된다. 영희는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

③ X: 선생님을 만났어도 첫 진술의 조건이 충족되어 커피를 마셨어야 한다. 셋째 진술에 따라 영희는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

④ X: '모두 만났다'가 참이려면 선배를 만났다는 내용과 선생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모두 참이어야 한다. 영희는 선배를 만났지만 **선생님은 만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을 모두 만났다는 진술은 거짓이다.

NoteBase

문 1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광수와 김동인은 한국 근대 문학 초기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이 둘의 작품은 표준어와 사투리의 사용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이광수의 대표작 「무정」에서는 작중 배경과 등장인물의 출신지가 서울이 아닌데도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반면 김동인의 대표작 「배따라기」에서 인물들의 대화는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맞는 사투리로 이루어진다. 작품의 리얼리티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무정」보다 「배따라기」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광수의 「무정」을 리얼리티의 구현 정도를 기준으로 낮잡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지방의 사투리를 통일하는 것은 중요한 화두였다. 이로 인해 표준어와 사투리의 위계가 공고해졌다. 당대의 지식인들은 표준어가 교양, 문화, 지식, 과학, 공적 영역 등의 근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투리는 야만, 비문화, 무지, 비과학, 사적 영역 등의 전근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광수가 계몽주의의 신봉자였음을 ㉢떠올리면, 그가 「무정」에서 표준어를 사용한 것은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이처럼 표준어의 사용은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는 현대 문학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경리의 「토지」에서 대부분의 인물들은 경상도나 함경도 사투리를 사용한다. 하지만 주인공 '서희'는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는다. 이는 작품의 리얼리티 형성에 방해가 되지만 해당 인물의 고고함과 차가움을 드러내는 데에 더할 수 없이 적절한 기능을 한다. 「토지」에 사용된 표준어는 인물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효과를 지닌다.

① 「배따라기」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리얼리티를 확보하였다.

② 「무정」에는 근대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③ 「토지」는 '서희'의 사투리 사용을 통해 작품의 리얼리티를 구현하였다.

④ 작품의 리얼리티를 기준으로 할 때, 「무정」이 「배따라기」보다 더 뛰어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광수는 표준어가 교양·문화·지식·과학 등의 근대적 가치를 나타낸다고 인식하던 시대에 계몽주의를 신봉하였다. 따라서 「무정」의 표준어 사용에는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첫째 문단에 따르면 「배따라기」의 인물들은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맞는 사투리**로 대화한다. 표준어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인물과 배경에 어울리는 사투리를 사용하여 작품의 리얼리티를 확보한 것이다.

② O: 둘째 문단은 당시 지식인들이 표준어를 교양·문화·지식·과학 등의 근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한다. 계몽주의를 신봉한 이광수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무정」에서 표준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인물의 출신지와 배경에 맞는 말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표준어 선택에 담긴 근대적 가치의 실현 의도**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③ X: 셋째 문단에서 「토지」의 다른 인물들은 주로 사투리를 사용하지만, **서희는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서희의 표준어 사용은 작품의 리얼리티 형성에는 방해가 되지만, 인물의 고고함과 차가움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④ X: 첫째 문단은 **리얼리티의 구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배따라기」가 「무정」보다 더 뛰어나다**고 설명한다. 「배따라기」의 대화가 인물의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맞는 사투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글은 이러한 기준만으로 「무정」을 낮잡아 평가해서는 곤란하며, 표준어 사용에 담긴 작가의 의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NoteBase

문 11. 윗글의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광수와 김동인은 한국 근대 문학 초기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이 둘의 작품은 표준어와 사투리의 사용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이광수의 대표작 「무정」에서는 작중 배경과 등장인물의 출신지가 서울이 아닌데도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반면 김동인의 대표작 「배따라기」에서 인물들의 대화는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맞는 사투리로 이루어진다. 작품의 리얼리티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무정」보다 「배따라기」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광수의 「무정」을 리얼리티의 구현 정도를 기준으로 낮잡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지방의 사투리를 통일하는 것은 중요한 화두였다. 이로 인해 표준어와 사투리의 위계가 공고해졌다. 당대의 지식인들은 표준어가 교양, 문화, 지식, 과학, 공적 영역 등의 근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투리는 야만, 비문화, 무지, 비과학, 사적 영역 등의 전근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광수가 계몽주의의 신봉자였음을 ㉢떠올리면, 그가 「무정」에서 표준어를 사용한 것은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이처럼 표준어의 사용은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는 현대 문학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경리의 「토지」에서 대부분의 인물들은 경상도나 함경도 사투리를 사용한다. 하지만 주인공 '서희'는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는다. 이는 작품의 리얼리티 형성에 방해가 되지만 해당 인물의 고고함과 차가움을 드러내는 데에 더할 수 없이 적절한 기능을 한다. 「토지」에 사용된 표준어는 인물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효과를 지닌다.

① ㉠: 영합(迎合)하는
② ㉡: 표상(表象)하는
③ ㉢: 상기(想起)하면
④ ㉣: 분명(分明)하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의 '맞는'은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들어맞는**다는 뜻이다. '영합하는'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비위에 맞추는** 뜻이므로 이 문맥의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영합하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비위에 맞추거나 그 뜻을 좇는다는 뜻이다. ㉠은 인물들의 사투리가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어울린다는 의미이므로, 남의 비위에 맞춘다는 뜻이 들어가면 원래 의미가 달라진다. '맞는'은 **'부합하는'이나 '들어맞는'**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② O: '표상하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내어 나타낸다는 뜻이다. 당대 지식인들은 사투리가 야만·비문화·무지 등 **전근대적 가치를 드러낸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의 '나타내는'을 '표상하는'으로 바꾸어도 문맥의 의미가 유지된다.

③ O: '상기하다'는 이전에 알았던 사실이나 생각을 다시 떠올린다는 뜻이다. 이광수가 계몽주의의 신봉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면** 표준어를 선택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문맥이므로, ㉢의 '떠올리면'은 '상기하면'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④ O: '분명하다'는 모습이나 내용이 흐릿하지 않고 또렷하다는 뜻이다. 표준어 사용이 서희의 고고함과 차가움이라는 **성격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문맥이므로, ㉣의 '뚜렷하게'는 '분명하게'로 바꿔 쓸 수 있다.

NoteBase

문 12.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한다. 의식주 같은 기본 생활에 더해 문화생활과 사회 활동도 소비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소비되는 것을 흔히 '상품'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재화'라고 해야 하는데, 재화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 상품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재화는 인류 역사상 늘 있었지만, 상품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출현하였다.

냉전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이고, 사회주의에서는 공직자가 최고이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기에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인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으며, 사회주의는 관료제의 폐해로 국가 기관이 부패해서 고위 관료라든가 고급 당원이 배불리 먹고산다는 의미이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볼 때 이 말은 사실에 가깝다.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상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중세의 상인들이 물건을 시장에 팔아 이윤을 얻기 위해 수공업자들을 조직하여 그들에게 자본과 도구를 빌려주고 물건을 대신 생산하게 한 데에서 자본주의가 출발하였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상품에 기초한 사회로, 상품은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상품도 존재할 수 없다. 목수가 ㉢집에서 쓰기 위해 만든 의자와 시장에 팔기 위해 만든 의자는 동일한 의자임에도 재화와 상품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르다.

이와 같이 상품에는 생산과 유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유통을 맡은 사람이 바로 상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이다."라는 말은 만드는 이에 비해서 파는 이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뜻이다. 자본주의화가 진행될수록 전자와 후자 사이의 차이는 더 커진다.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갈수록 단순해지고 상품의 대량생산은 쉬워지는 반면, 유통의 경우 상품과 최종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므로 생산에 비해 우회로를 더 많이 거치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업의 이윤은 적어지고 유통업의 이윤은 많아진다.

① 사회주의에서는 유통이 생산보다 중요하다.

②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③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업과 유통업의 이윤 차이는 줄어든다.

④ 중세의 상인들은 물건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시장에 팔 물건을 손수 생산하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상품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므로, 상품이 존재하려면 그것을 판매할 시장이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은 사회주의에서 고위 관료나 고급 당원이 잘사는 이유를 관료제의 폐해와 국가 기관의 부패로 설명한다. 이는 생산과 유통의 중요성을 비교한 내용이 아니므로, **사회주의에서 유통이 생산보다 중요하다고 추론할 수 없다**. 생산하는 이보다 판매하는 이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설명은 자본주의에 관한 것이다.

② O: 셋째 문단에서 상품은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 생산되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상품도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시장의 형성은 상품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상품이 존재한다면 그 상품을 판매할 시장도 형성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③ X: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업의 이윤은 적어지고 유통업의 이윤은 많아진다. 생산은 기술혁신으로 단순해지고 대량생산이 쉬워지는 반면, 유통은 상품과 최종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져 더 많은 우회로를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과 유통업의 **이윤 차이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④ X: 셋째 문단에서 중세의 상인들은 시장에 물건을 팔아 이윤을 얻으려고 수공업자들을 조직하고 자본과 도구를 빌려주었다. 물건은 상인이 손수 만든 것이 아니라 **수공업자들이 대신 생산**하였다. 또한 글에 제시된 목적은 판매를 통한 이윤 획득이며,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였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NoteBase

문 13. 윗글의 ㉠~㉣ 중 문맥상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한다. 의식주 같은 기본 생활에 더해 문화생활과 사회 활동도 소비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소비되는 것을 흔히 '상품'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재화'라고 해야 하는데, 재화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 상품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재화는 인류 역사상 늘 있었지만, 상품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출현하였다.

냉전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이고, 사회주의에서는 공직자가 최고이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기에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인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으며, 사회주의는 관료제의 폐해로 국가 기관이 부패해서 고위 관료라든가 고급 당원이 배불리 먹고산다는 의미이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볼 때 이 말은 사실에 가깝다.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상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중세의 상인들이 물건을 시장에 팔아 이윤을 얻기 위해 수공업자들을 조직하여 그들에게 자본과 도구를 빌려주고 물건을 대신 생산하게 한 데에서 자본주의가 출발하였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상품에 기초한 사회로, 상품은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상품도 존재할 수 없다. 목수가 ㉢집에서 쓰기 위해 만든 의자와 시장에 팔기 위해 만든 의자는 동일한 의자임에도 재화와 상품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르다.

이와 같이 상품에는 생산과 유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유통을 맡은 사람이 바로 상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이다."라는 말은 만드는 이에 비해서 파는 이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뜻이다. 자본주의화가 진행될수록 전자와 후자 사이의 차이는 더 커진다.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갈수록 단순해지고 상품의 대량생산은 쉬워지는 반면, 유통의 경우 상품과 최종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므로 생산에 비해 우회로를 더 많이 거치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업의 이윤은 적어지고 유통업의 이윤은 많아진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의 의자는 **집에서 직접 쓰기 위해** 만든 재화이다. 나머지는 문맥상 **시장에서 판매할 목적**을 지닌 상품을 가리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지문은 생산 목적을 기준으로 재화와 상품을 구분한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재화로,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상품으로 설명한다. 밑줄 친 표현도 이 기준으로 문맥상 의미를 비교한다.

① ㉠ '물건': 상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대상이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뜻한다. '물건'이라는 일반적인 말도 이 문맥에서는 판매의 대상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② ㉡ '상품': 지문에서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판매를 전제로 한 생산물**을 뜻한다.

③ ㉢ '집에서 쓰기 위해 만든 의자': 목수가 판매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사용하려고 만든 재화**이다. 같은 의자라도 시장에 팔기 위해 만든 의자와는 생산 목적이 다르다.

④ ㉣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물품': 바로 앞의 '상품에는 생산과 유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설명을 이어받는다. 뒤에서도 상인이 그 유통을 맡는다고 하므로, 문맥상 **판매를 위해 생산되어 유통되는 상품**을 가리킨다.

㉠·㉡·㉣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가리키지만, ㉢은 직접 사용하려고 만든 재화를 가리킨다. 문맥상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며, 이는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기호에는 정보성, 즉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정보성은 기호가 가진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기호에는 정보성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는 것도 있다. 즉 기호는 정보성만 가진 기호와 정보성도 가진 의사소통적 기호로 구분된다. 가령 개나리가 피는 것은 봄이 왔다는 신호이고 낙엽이 지는 것은 가을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절을 알리기 위해 개나리가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적 기호들은 의사소통적 기호로 볼 수 없다. 개인의 지문이나 필체 역시 사람을 식별하는 기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문과 필체가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은 정보성을 가진 기호일 뿐이다. 코넌 도일의 소설에서 셜록 홈스는 상대의 손톱, 코트의 소매, 표정 등을 근거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을 추리해 낸다. 홈스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의사소통적 기호라고는 할 수 없다. 반면 인간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인 봉화, 교통 신호등, 모스 부호 등은 정보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명백히 가진다. 모든 기호를 통틀어 인간의 언어는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관습적 기호이며 의사소통적 기호이다.

① 전쟁 중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는 관습적 기호이다.

② 일기예보에서 흐린 날씨를 표시하는 구름 모양의 아이콘은 자연적 기호이다.

③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얼굴색은 정보성만을 가진 기호이다.

④ 이웃 마을과 구별하기 위해 마을의 명칭을 본떠 만든 상징탑은 의사소통적 기호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일기예보의 구름 모양 아이콘은 실제 구름이 아니라 날씨를 알리려고 사람이 만든 표시이다. 따라서 **자연적 기호가 아니라 관습적 기호**이며, 의사소통의 의도도 지닌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군대의 암호는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미리 정한 약속**에 따라 특정 정보를 나타낸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에서 의미를 읽어 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관습적 기호이다.

② X: 일기예보의 구름 모양 아이콘은 흐린 날씨를 알리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 사용하는 표시이다. 자연 현상인 구름을 본뜬 모양이라고 해서 자연적 기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습적 기호이자 의사소통적 기호**로 보아야 한다.

③ O: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얼굴색은 건강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얼굴색이 질병을 알리려는 의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제시문의 기준에서는 **의사소통의 의도 없이 정보성만 가진 기호**이다.

④ O: 마을의 명칭을 본떠 만든 상징탑은 그 마을이 어느 곳인지 알려 주는 정보를 담는다. 특히 **이웃 마을과 구별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마을의 정체성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의사소통적 기호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의 (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자아 개념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 견해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격, 태도, 느낌 등을 모두 포괄한다. 자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타인에게서 듣게 되는 나와 관련된 메시지를 들 수 있다. 물론 타인 중에는 자신이 느끼기에 나에게 관련이 적은 사람도 있고 중요한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너의 글은 인상적이야.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그 평가는 자아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는 부모, 친구, 선생님 등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가)의 말은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이다.
한편,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자아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는 (나)라는 것도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타인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 하거나 타인의 훈육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기보다는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추정한다. 그러한 추정을 통해 자기에게 생겨난 감정을 알아 가는 과정에서 성숙한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

① (가): 관련이 적은 타인, (나): 거울에 비친 자아

② (가): 중요한 타인, (나): 모범적인 타인을 따르는 자아

③ (가): 관련이 적은 타인, (나): 모범적인 타인을 따르는 자아

④ (가): 중요한 타인, (나): 거울에 비친 자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자아 개념에 큰 영향을 주고 오래 기억되는 말은 **중요한 타인**의 말이다. 타인에게 비치는 자기 모습과 그에 대한 평가를 상상하며 자아를 형성한다는 설명은 **거울에 비친 자아**에 해당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중요한 타인. 앞부분은 같은 칭찬이라도 말한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면 자아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부모, 친구, 선생님 등을 그 예로 든 뒤 그들의 말이 오래 기억된다고 하므로, (가)에는 '중요한 타인'이 들어간다.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이며, '관련이 적은 타인'은 이러한 문맥과 맞지 않는다.

(나): 거울에 비친 자아. 뒷부분은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추정하며, 그로 인해 생긴 감정을 알아 가는 과정으로 자아 형성을 설명한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자신을 비추는 거울 구실을 한다는 뜻에서 '거울에 비친 자아'가 들어간다. 핵심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상상하는 것**이다. '모범적인 타인을 따르는 자아'는 타인의 행동을 본보기로 삼아 따라 하는 데 초점을 두므로, 글에서 설명한 과정과 다르다.

(가)의 '중요한 타인'과 (나)의 '거울에 비친 자아'를 연결한 조합은 ④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식단을 조절하거나 근력 운동을 한다.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따라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① 건강한 사람은 모두 식단을 조절한다.
②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③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 중에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
④ 식단 조절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 중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미 건강하다고 주어져 있다. 따라서 식단만 조절하는 마라톤 참여자까지 건강하다고 결론 내리려면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도 모두 건강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공통 해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식단을 조절하거나 근력 운동을 한다. 여기서 '하거나'는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모두 건강하려면, 이 두 경우가 모두 건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근력 운동을 하는 경우는 이미 설명된다. 아직 건강하다고 보장되지 않은 경우는 **근력 운동을 하지 않고 식단만 조절하는 경우**이다. 여기에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를 추가하면,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도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도 건강하다. 따라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어느 경우에 속하든 건강하다는 결론이 성립한다.

'건강한 사람은 모두 식단을 조절한다'는 **조건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이 건강한지는 보장하지 않는다.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 중에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두 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만 배제할 뿐, 식단만 조절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식단 조절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 중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이 모두 건강하다는 기존 전제에서 이미 따라오는 내용으로, 식단만 조절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언어는 인간의 지각과 사고, 세계관 등을 결정해. 인간 사고의 내용과 구조는 언어에 의해 형성되며, 이 때문에 동일한 언어를 쓰는 민족은 그 언어에 의해 형성된 공통의 세계관을 갖게 되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반대야.
을: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해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해. 따라서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지.
병: 그렇긴 하지. 사고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구사하는 언어의 수준이 높아. 하지만 나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동의해. 남미의 어떤 부족은 방향을 표현할 때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북서쪽'과 같이 절대 방위로 표현하는데,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공간 감각은 이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거든.
갑: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해. 어떤 언어의 화자가 자기 언어의 색채어에 맞추어 색깔을 구별하는 것을 그 사례로 들 수 있어. 이런 점에서 언어가 없다면 인식하고 사고할 수 없다는 말도 성립해.
을: 언어가 미숙한 유아라든지 언어가 없는 동물들도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사고하고 판단하잖아. 이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이지.
병: 나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한다고 생각해.

①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 대해 갑과 을은 동의하지 않지만 병은 동의한다.

②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갑은 동의하지만 을은 동의하지 않는다.

③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에 대해 갑과 병은 동의한다.

④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는다는 점에 대해 을과 병은 동의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는 갑과 을의 입장을 서로 바꾸어 설명했다.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갑은 동의하지 않고, 을은 동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갑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고 보고,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부정한다. 을은 반대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부정한다. 두 사람 모두 한쪽 방향의 영향만 인정하는 데 비해, 병은 **언어와 사고의 상호 영향**을 인정한다.

② X: 갑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반대'라고 말하므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을은 언어가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라며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선지의 입장은 **'갑은 동의하지 않지만 을은 동의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갑은 화자가 자기 언어의 색채어에 맞추어 색깔을 구별한다는 사례를 들어 언어에 따라 세계 인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병도 절대 방위로 방향을 표현하는 언어와 그 사용자들의 공간 감각을 연결하여 설명한다. 두 사람 모두 **언어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④ O: 을은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지'라고 직접 말한다. 병도 사고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구사하는 언어의 수준이 높다고 말하여, **사고의 차이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드러낸다. 병은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인정하지만, 이것이 사고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8. 다음 대화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갑: 친구에게 보내는 감사 메일에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건강해라.”라고 적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건 잘못된 표현이니까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 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을: 문법 규범에 어긋난 표현이 자주 쓰인다는 이유로 문법 규범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돼. 문맥상 “건강해라.”는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의미를 지니는데 건강한 상태를 명령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형용사의 명령형은 문법 규범에 어긋난 거니까 사용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어휘도 사람들이 자주 쓴다고 해서 비표준어가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갑: 문법 규범에 맞게 쓰거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하는 것은 옳지만, 문법 규범에 맞지 않거나 비표준어라고 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문법 규범이나 표준어는 공통의 언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된 것일 뿐이거든. “건강해라.”는 언중에게 널리 쓰인다는 점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어.

ㄱ. ‘쓰여지다’, ‘잊혀지다’와 같은 이중 피동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문법 규범에 맞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갑과 을의 입장을 모두 강화한다.
ㄴ. 명령문 “행복해라.”가 문법 규범에 맞지 않지만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는 주장은 갑의 입장을 약화한다.
ㄷ. 언중이 비표준어이던 ‘맨날’을 자주 사용하는 현실에 따라 표준어 ‘만날’과 함께 ‘맨날’도 표준어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비표준어였던 '맨날'이 널리 쓰이는 현실을 반영해 표준어로 인정된 사례는 **언중의 사용이 규범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자주 쓰인다고 비표준어가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을의 근거를 약화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갑은 문법 규범과 표준어의 사용을 권장하는 데 동의하지만, 규범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반면 을은 널리 쓰이더라도 문법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ㄱ. X: 이중 피동 표현이 널리 쓰이더라도 문법 규범에 맞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을의 입장만 강화**한다. 갑은 규범에 맞는 표현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과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구별한다. 따라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갑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한다.

ㄴ. X: '행복해라.'가 규범에 맞지 않더라도 기원의 의미로 널리 쓰이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갑의 입장을 강화**한다. 갑이 '건강해라.'의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도 언중에게 널리 쓰인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표현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이 입장에 부합하므로, '약화한다'를 '강화한다'로 고쳐야 한다.

ㄷ. O: 을은 어휘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쓴다고 비표준어가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자신의 근거로 제시한다. 그런데 보기의 '맨날'은 언중이 자주 사용하는 현실에 따라 기존 표준어 '만날'과 함께 표준어로 인정된 사례이다. 이는 **널리 쓰이는 언어 현실이 표준어 인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주므로 을의 근거를 약화한다.

적절한 평가는 ㄷ뿐이므로, ㄷ만 제시한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대화의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갑: 공무원은 공직자이고 공직자는 그 직책만으로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야. 모든 공무원은 공인이니까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 그런 사명감을 가질 의무는 없지.
을: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들이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잖아. 네가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가).”가 참이어야 해.

① 몇몇 공인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
② 모든 공무원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
③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다
④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 아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무원이 아니면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는 말은 **'그 의무가 있으면 공무원이다'**와 대우 관계이므로 뜻이 같다. '공무원이면 그 의무가 있다'는 기존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관계까지 보장되지 않는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갑이 주장하려는 내용은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이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는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이므로,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어야 한다**. 이처럼 조건과 결론을 서로 바꾸면서 둘 다 부정한 명제를 대우라고 하며, 원래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같다.

(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다'가 들어간다. 이 말이 참이라면 공무원이 아닌데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으므로, 갑이 주장하려는 내용이 성립한다.

갑이 앞서 제시한 '모든 공무원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다'의 대우는 ④의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 아니다'이다. ④는 **기존 주장과 같은 뜻**일 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그 의무가 있는지는 정해 주지 못한다.

①도 몇몇 공인에게 의무가 없다는 말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전체의 의무 유무를 정해 주지 못한다.

②는 공무원에게 의무가 없다는 말로, 갑이 의무가 있다고 한 대상의 의무를 부정하며 필요한 관계를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에 필요한 것은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③의 진술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의 논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이 지닌 대부분의 지적 능력을 상회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동하는 기계 장치를 '인공일반지능'이라고 부른다. 이론적으로 인공일반지능은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기능을 전부 갖게 될 것이다. 인공일반지능의 등장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이 허용된다면 머지않아 인공일반지능은 개발된다. 이로 인해, 인공일반지능은 대부분의 직업 영역에서 인간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소외감을 느낌으로써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 또한 인공일반지능이 개발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지구상에서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가 아니게 된다. 이는 인간이 지닌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론적 지위, 즉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므로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은 허용될 수 없다.

① 인공일반지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② 인공지능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H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어 사람들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④ 유관 학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대화형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로하여 **본질적 가치의 회복**을 돕는다면, 인공지능에는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인공일반지능은 기존 인공지능의 기능을 모두 갖게 된다는 지문의 설명에 따라 이러한 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가치 훼손을 이유로 개발을 금지하려는 논지가 약화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글은 인공일반지능이 일자리 상실과 소외감을 초래하고, 인간의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론적 지위를 무너뜨려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각 선지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설득력을 낮추는지를 비교한다.

① 강화하는 방향이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만으로도 실직과 소외감이 발생한다는 사례는 글이 우려하는 **일자리 상실과 소외감**에 현실적 근거를 보탠다. 이것만으로 인공일반지능의 영향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반대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② 강화하는 방향이다. 인공지능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H가 개발 중단을 주장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위협**이다. 이는 글이 제시한 두 번째 우려와 일치하므로 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전문가의 주장 자체가 그 위험을 반드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③ 약화하는 방향이다. 대화형 인공지능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본질적 가치의 회복을 돕는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는 근거이다. 지문에 따르면 인공일반지능은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인공지능의 기능을 갖게 되므로, 이러한 회복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글이 제시한 실직이나 지위 상실의 가능성을 모두 부정하지는 않지만, 가치 훼손을 이유로 개발을 금지하려는 논지에 맞서는 근거가 된다.

④ 강화하는 방향이다. 관련 학회 전문가 다수가 가치 훼손을 우려하여 개발 금지에 동의한다는 설문 결과는 **글과 같은 우려와 결론을 지지**하는 자료이다. 다수의 동의만으로 주장이 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가 글의 논지를 약화하는 근거는 아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도록 돕는 기능을 제시한 ③이 글의 논지를 약화한다.

NoteBase